

우리의 마음 맑다

2018. 04 제111호(복간호)

목포화경운동연합

58753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Tel 243-3169 Fax 244-7345

E-mail mokpo@kfe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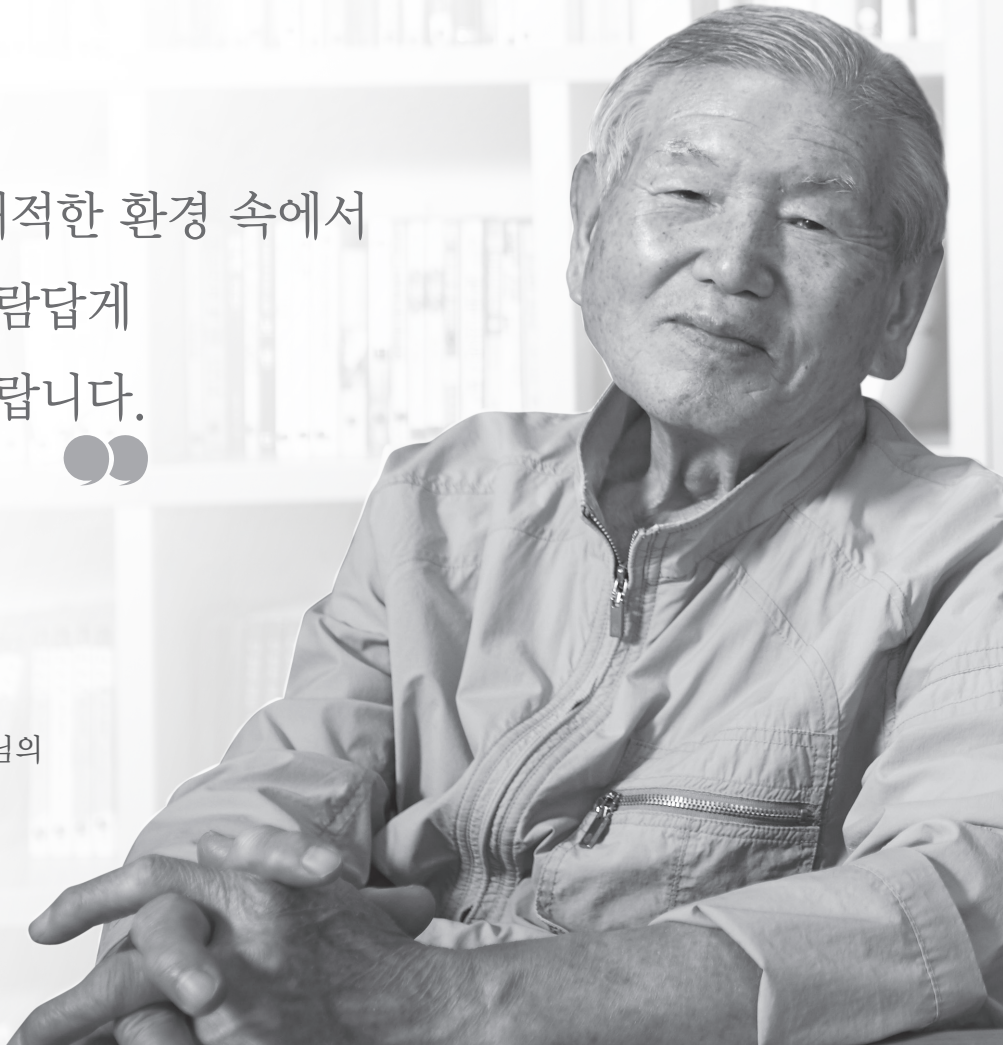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mokpo.kfem.or.kr>



모든 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故 서한태 상임고문님의
명복을 빕니다





故 서한태 상임고문 살아오신 길

1928년 09월 18일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노송정마을을 출생
1942년 03월 25일	일로심상소학교 졸업
1946년 08월 05일	목포중학교 졸업
1953년 03월 26일	전남대학교 의대 졸업
1953년 03월 28일	육군중위 임관
1953년 04월 15일	제2회 의사국가시험 합격
1961년 06월 23일	방사선과 전문의 취득
1962년 03월 31일	군 제대
1962년 06월 21일	서방사선과 의원 개업
1964년~66년	목포중고 동창회장
1976년~77년	목포시의사회 회장
1977년~78년	목포고등학교 육성회장
1968년 12월 11일	태권도 창무관 입관
1971년 06월 11일	태권도협회 공인4단 승단
1970년	행림클럽 조직 ※행림클럽: 의사 모임
1973년	국제봉사클럽협의회 조직
1976년 03월	의약인협의체 조직
1970년 07월 18일	재목무안향우회 창립
1977년~80년	목포시체육회 부회장
1977년~78년	청호라이온스클럽 회장
1978년 04월 07일	보건의료분야 신현학 보사부장관상 수상
1978년 11월 14일	《목포체육사》 발간
1983년 06월 23일	영산호보존회 회장
1984년 12월 18일	제3회 무등문화상 지역개발상 수상
1986년 09월 09일	삼학도보전회 창립
1987년~91년	전라남도 의사회 의장
1987년 04월 17일	제19회 동아의료문화봉사상 수상
1987년 07월 12일	유달산보전회 창립
1987년 11월 24일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창립
1988년~92년	목포녹색연구회 회장
1988년 09월	《내 땅을 지키고자-목포지역 반공해운동 성공사례》 출판
1990년 04월 19일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1991년 12월 27일	올해의 호남인상 수상
1992년 06월	목포생활문화연구소 개설
1992년 10월 10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목포시지부 공동대표
1992년 12월 10일	제36회 전라남도문화상 수상
1994년 03월 03일	목포물문제해결을위한시민회의 의장
1996년 7월 7일	(사)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이사장
1996년 11월 14일	푸른전남21협의회 이사장
1996년 12월~2006년	《환경과 건강》 제1호~제15호 발간
1996년 04월 24일	거리사랑북녘동포돕기목포시민운동본부 부부장
1997년 6월	북한어린이살리기약품지원광주전남보건의료인본부 공동의장
1997년 06월 24일~2018년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1998년 11월 12일	제1회 교보환경문화상 대상 수상
2000년~2002년 8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자문위원
2000년 06월 05일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2009년 12월	《환경에 관한 150가지》 출판
2014년 07월	《패적인 환경을 찾아서》 출판
2017년 08월 0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남본부목포지부 고문
2018년 03월 14일	영면에 드시다

●● 환경운동가 故 서한태 선생님 영전에



지난 15일 오후 목포호사랑장례식장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의 '서한태 박사 추도식'에서 최태욱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이 추도사를 올리고 있다.

1번으로 항상 선생님의 존함 다음에 다른 동문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목포시의사회 회장을 하실 때는 사리분별이 정확하시고 상호간에 배려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정확히 이끌어 주셨고, 전라남도의회 대의원 총회 의장시의 깔끔한 회의 진행은 모든 회의 진행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에 참여하시면서 영산호 주정공장이 허가가 난 것을 군사정권 시절에 철수하게 한 것은 아마 환경운동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옳은 일이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밀어붙이시는 독심은 강건한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박사님께서서는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환경관련 도서는 물론 인문사회과학 서적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고 많은 양의 독서를 즐기셨고 책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민토론의 광장, 대화마당을 자주 여셨습니다. 특히 늘 젊은 후배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차 한잔 하시자며 가까이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시며 후배들의 의견을 항상 묻곤 하셨습니다. 걸음이 불편하신 뒤로는 집 앞 곰탕집에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꼭 두 번씩 점심시간에 후배들과 어울리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셨습니다.

항상 미소 지으시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씀해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회식 때 건배사로 항상 하셨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라고 늘 하셨는데 귤가에 쟁쟁합니다. 다시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생애동안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많은 일을 이루어내시고 가정적으로도 사모님 건강하시고 6남매를 잘키워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로 길러 내셨고 따르는 후학들도 많아 많은 분들이 슬픔 속에서 선생님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 다 하셨으니 모든 것 잊으시고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글 / 최태욱 (의사, 목포시의료원장,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



1,000명 회원 시대로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재도약을 다짐하며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온 누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따사로운 봄날, 9년 만에 복간된 <물 맑으면 마음 맑다>를 가지고 회원 여러분을 찾아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부터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게 된 최송춘, 고윤혁, 박갑수입니다.

그동안은 한분의 의장이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하였으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쌓여 한분의 의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희 세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무거운 책임감은 여전히 회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금년 한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함으로써 그 무거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과 관심으로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역 시민사회운동단체의 평가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달산 케이블카 공사를 지지하지 못하고 유달산 훼손 현장을 두 눈 뜨고 봐야만 하는 것과 같이 한계 또한 분명하여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사업 계획 가운데 회원 배가 사업을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또한 회원 배가 사업은 4월부터 중앙 보조금의 중단으로 겪게 될 재정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의장을 포함한 16명 집행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노력과 이에 더한 회원님들의 노력을 모아 1,000명 회원 시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금년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조직사업 : 목포인구 대비 0.5% 회원확보 (* 장기적 목표 1%)
회원참여 및 조직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2. 중점사업 : 환경·주민친화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제안 및 실천활동
생태민주주의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 (지방선거, 개헌운동 적극 참여)
3. 연대사업 : 환경·인권·정의·민주·통일·평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지역의 모든 개인 및 단체와 연대 활성화
4. 특별사업 : 공원일몰제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대응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점점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커 가고 이 지역 대표 환경운동 단체로서 이에 부응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자부심이라고 봅니다.

회원여러분!

저희 세 명의 대표를 포함한 16명의 집행위원들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1,000명의 회원 시대를 열어 목표를 포함한 이 지역 환경운동을 짊어지고 뿌듯해 하는 2018년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회원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 참여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공동의장 최송춘, 고윤혁, 박갑수 드림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활동보고

03월 05일(월) 강하구위원회 월례회의/조직강화특별
위원회/환경교육위원회 회의
03월 07일(수) 물관리위원회 기자회견(자유한국당사)
03월 08일(목) 제204차 집행위원회
03월 12일(화) 들풀 소모임 월례회의
03월 14일(수)~16일(금)故서한태 상임고문 장례식
03월 17일(토) 청소년환경서포터즈 발대식
03월 20일(화) 고문·지도·자문 간담회
03월 29일(화) 제41회 목요대화마당(도시재생과 환경)

▶ 연대활동

03월 02일(금) 세월호 집행위원회
03월 05일(금) 6·13지방선거 시민네트워크 회의
03월 06일(화) 5, 6월 사업 시민단체회의
03월 13일(화) 6·15실천목포지부 집행위 회의
03월 14일(수) 사무처장단회의(대전NGO)
03월 15일(목) 광주전남사무처회의(장흥)
03월 19일(월) 목포여성단체 연대회의
03월 20일(화) 민주인권포럼(준) 4차 회의
6·13지방선거 시민네트워크 회의
03월 26일(월) 세월호 지킴이 활동

환경도서/영화/음악 추천



- 지은이 : 정 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시민이 도시를 바꾼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방법
- 도시를 새로이 보는 눈, 도시 인문학 “어떤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까?”

도시설계 전문가인 저자에게 시민들이 강연의 말미에 어김없이 하는 질문이다. 저자의 답은 간단하다. 좋은 도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이 사는 곳, 튼튼한 시민이 만드는 곳이라고, 자신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야기로 좋은 시민이자 그 도시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언뜻 나와 무관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도시설계에 관한 편견을 깬다. 도시에서 사는 이라면 누구나 체득할 수 있는 것이 도시학이자 도시설계다. 이 책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건네는, 시민에게 필요한 도시학개론이다. 저자가 동네 아저씨로, 시민으로 살아온 일상에서부터 20여 년간 도시 연구를 통해 쌓아온 도시 DIY의 노하우와 도시 철학을 담았다.



- 지은이 : 정 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 튼튼한 도시에 갇힌 한국 사회를 향한 예리한 질문과 섬세한 대안들

최근 민간·공공 건축물 구분할 것 없이 화려한 랜드마크들이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튼튼한 건축이 좋은 건축이고, 튼튼한 도시가 좋은 도시라는 오해에 서 빚어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튼튼한 도시의 대안으로 참한 도시를 제안하면서, 참한 도시란 ‘자연미가 살아 있는 도시’, ‘역사와 기억이 남아 있는 도시’, ‘차보다 사람을 섬기는 도시’, ‘우리 손으로 만든 도시’ 라 정의한다. 풀어간다. 저자 특유의 살가운 글쓰기 스타일과 현장에서 그러모은 두툽한 실증 자료가 더해져 어떤 독자나 만만하게 읽을 수 있고, 내용만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교양서로 태어났다.

회비 납부 현황

(유)사람과사람 (주)세일산업 신우메디컬센터(김일섭) 해바라기치과의원 (주)현성건설 우진건설 감의갑(장미선) 강구일 강대화 강덕수

강명곤	강영규	강제석	강창민	강창원	강철수	강혜정	고경석	고광업	고광진	고성철	고윤혁	곽신영	곽재구	국순천	권민준
권지원	김경미	김경완	김광미	김광호	김근순	김기봉	김나영	김대중	김도형	김동욱	김명숙	김명종	김명화	김무영	김미영
김미정	김미화	김민국	김민규	김민근	김병주	김상훈	김선남	김성륜	김성희	김수린	김숙자	김심옥	김애자	김연호	김영남
김영미	김영숙	김영식	김영운	김영재	김영준	김영현	김영호	김 옥	김완석	김용구	김웅기	김윤임	김은미	김인수	김재영
김재욱	김정민	김종국	김지숙	김지연	김진영	김창식	김 탁	김태웅	김현근	김현숙	김현주	김형기	김형기	김형애	김홍안
김화래	김화영	김희주	나광봉	나영명	나천귀	남영숙	노애란	류미현	마홍식	모원종	무 관	문경진	문원규	문철주	문 호
민경관	박갑수	박경양	박기성	박기철	박기훈	박동구	박동환	박미덕	박병구	박성원	박순미	박영운	박용일	박용호	박윤길
박은숙	박은희	박재신	박종길	박종섭	박종위	박지현	박찬우	박창수	박창우	박천웅	박최균	박한진	박 현	박 현	박현경
박 현	박현진	박혜숙	박화진	배동희	배서영	백동진	백수정	서병권	서연순	서정만	서한배	서한태	설지연	성상훈	손철주
송정미	신동영	양덕수	양승희	양정호	양주동	양진국	양현주	양효식	염미순	염송주	오경섭	오숙향	오영철	오하늘	오현주
육선필	위준철	유대홍	유원석	유효진	윤기현	윤 남	윤동준	윤선영	윤성광	윤성수	윤원희	윤종인	이경매	이경석	이경숙
이경아	이경택	이국희	이동훈	이명희	이봉섭	이상엽	이성환	이승용	이승한	이승환	이용철	이우주	이일호	이재경	이재우
이재이	이재현	이정식	이중훈	이준화	이지현	이창일	이창현	이태환	이현승	이현정	이현주	이현진	이형광	임경숙	임성진
임진욱	임창욱	임 혁	장근천	장동춘(박민아)	장영미	장이주	장이진	장재연	장진실	전경란	전성열	전용원	전준수	정거배	
정귀정	정금규	정수민	정순용	정승원	정연수	정연희	정일승	정중삼	정지범	정창권	정현찬	조광필	조상현	조선희	조애련
조애순	조영인	조욱현	조원기	조혜향	진선우	천정우	최경만	최비호	최 선	최송춘	최영섭	최영운	최완수	최은기	최은주
최이문	최정삼	최지우	최철수	최태욱	최태욱	최화녕	최휘철	하영성	한봉철	한양규	한은섭	허진홍	홍광복	홍선기	홍성혁
홍택용	황해미														

자발적 증액 회원 박갑수 · 국순천 10,000원 증액 / 이현승 5,000원 증액

목포환경운동연합 3월 결산보고

3월 1일 ~ 3월 31일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3,790,000	교육사업	332,200
	단체회비	340,000	조사연구	
	2월 3차 CMS	415,000	홍보비	
	소 계	4,545,000	행사비	658,430
행사수입	140,000	연대사업	148,260	
후원금	3,050,000	소 계	990,630	
중앙지원금	1,000,000	회 의 비	총 회 비	
기타수익	178,500		위원회비	294,000
이자수익	17	소 계	990,630	
[개인 연회비]		관 리 비	인 건 비	3,270,000
▶ 박종길 10만원			복리후생비	657,340
			퇴직적립금	272,500
		소 계	4,917,970	
[후원금]		업무추진비	출 장 비	126,200
▶ 서한태박사님 장례관련 후원금			활 동 비	160,000
: 집행위 120만, 강창민 50만, 광양환경운동연합 10만, 후원회원 20만		소 계	5,044,170	
▶ 특별후원금 : 강대화 1백만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수 선 비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295,750
			소모품비	155,000
		소 계	5,357,920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지급 수수료		79,620
전월이월금	1,418,115	당월지출금	6,563,520	
당월수입금	8,913,517	차기이월금	3,768,112	
합 계	10,331,632	합 계	10,331,632	

4월22일 지구의 날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자연환경 보호의 날이다.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는 달리 순수 민간운동에서 출발했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위스콘신 주의 게이로드 넬슨 상원의원이 환경문제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구의 날'을 주창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허버드대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 나서 첫 행사를 열었다.

2,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구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연설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실천적인 행동을 하였다. 뉴욕 5번가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6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 환경집회에 참여하였다. 이후 환경문제는 서서히 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지구의 날'이 세계적 규모의 시민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90년에 이르러서

이다. 그 해 지구의 날 행사에는 세계 150여 개국이 참가하여 지구 보호에 인류공영이 달려 있음을 호소하였다. 국내에서도 1990년 Earthday Network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0개국, 500여 단체가 참여한 「지구의 날」에 '이 땅을, 이 하늘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뿐인 지구, 하나뿐인 국토, 하나뿐인 생명'을 주제로 「지구의 날」을 시작했다.

환경상식

지구온난화로 사라질 위기 음식은?

이번 겨울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며 예년보다 한랭 질환자가 40% 이상 증가했다 한다. 올겨울 한파의 주요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지구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지구의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폭염이 더 심해지고 추위는 더 가혹해진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맥주 / 앞으로 맥주의 청량감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맥주 양조에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홉과 보리를 기르는데 물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평균기온 상승, 잦은 기후변화는 보리와 홉의 정상적인 생산을 방해하는 요

소입니다.



사과 / 사과와 같은 과일이나 견과류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추운 날이 충분해야 하는데 이는 온대지방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과가 유명한 대구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과 농사를 짓는 지역

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겨울이 짧아지거나 추운 날씨가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개화시기가 늦어지는 등 관련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초콜릿 / 햇빛과 강수량, 토양의 상태는 카카오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카카오 열매는 충분히 건조되어야 상품성이 높아지는데 기후변화는 이를 방해합니다.

오늘날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고도는 해발 100~250m로 높아지게 되고 생산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소모임 소식

해양환경위원회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은 해양쓰레기의 발생 및 이동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준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인접국가 간 해양쓰레기 대응전략의 주도적 참여계기 마련 및 민간단체 간 협력강화 도모를 위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은 2개월에 1회씩 1년에 총6회가 진행되고 2월에 이어 이번에 2회차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 4월 2일 ● 장소 : 진도 하조도 /해남 묵동리
- 참여인원 : 4명

녹색연구회

[4월 회원 · 가족 걷기모임 안내]

- 봄맞이 유달산 둘레길 탐방 -

2018년 첫 모임은 기암괴석, 수많은 이야기가 살아있는 목포의 상징 유달산을 찾아 갑니다.

- 출발일시 : 4월 21일(토) 오후 2시
- 출발장소 : 어민동산
- 준비물 : 물, 간단한 간식
- ※ 회원과 회원가족 여러분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회원 소식

●● 3월부터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 양승희 추천 : 소복례(숲해설가), 박성현(공무원)
- 박성원 추천 : 박관호(교사), 장근천(교사)
- 임경숙 추천 : 조경민((사)서울산책 대표)
- 자발적 가입 : 최 웅(공무원)

|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회원 신청서

■ 이름

■ 휴대전화 (□수신)

■ 주소 (□집 □직장/ □우편물수령)

■ 이메일 (□수신)

후원회원 신청서

■ 은행명

■ 계좌번호 (전화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는 출금이 안됩니다)

■ 후원액 □ 15,000원 □ 20,000원 □ 30,000원 □ 직접입력()

■ 예금주 이름

■ 예금주 생년월일

■ 출금일 □ 10일 □ 20일 □ 28일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주민번호를 적어주세요

동의함 동의 안함

주민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

2-1)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 목적 : CMS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휴대전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후 5년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정보를 제공하는 자	제공항목	개인정보 이용 목적
휴먼소프트웨어	후원정보 및 후원금 결제정보	후원자관리 및 후원금 결제정보관리/문자 및 이메일 발송
금융결제원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은행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보